

721Th

자유를 갈망한 영혼들

JAMES EHNES

바이올린 제임스 에네스

PROGRAM

스트라빈스키 <풀치넬라 모음곡>
Stravinsky <Pulcinella Suite>

쇼스타코비치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a단조, 작품 77>
D. Shostakovich <Violin Concerto No. 1 in a minor, Op. 77>

프로코피예프 <로미오와 줄리엣 모음곡 중 발체>
S. Prokofiev <Romeo & Juliet Excerpts>

2017.
8.24.THU.
8PM

롯데콘서트홀

2017.
8.25.FRI.
8PM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YOEL LEVI

지휘 요엘 레비

자유를 갈망한 영혼들

스탈린 독재 치하의 소련에서 예술가들은 끝없는 자기검열과 압제의 공포에 시달려야 했다. 당시 문화정책을 입안했던 안드레이 즈다노프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표방하면서 모든 예술을 공산당의 선전수단으로 격하시켰다. 쇼스타코비치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은 스탈린 시대가 막을 내린 이후 소련 당국의 탄압을 피해 가까스로 발표된 음악이다. 그의 절친한 친구이자 당대의 바이올리니스트였던 다비트 오이스트라흐를 염두에 두고 쓴 곡이며, 쇼스타코비치 특유의 날카로운 회색빛 감성과 고전주의를 향한 회고적 서정, 비르투오조 바이올린의 초절기교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다.

한때 모더니즘에 천착했던 프로코피예프가 낭만적 세계로 다시 눈길을 돌린 후 그는 볼쇼이 극장의 의뢰로 본격적인 발레음악을 쓰기 시작한다. 셰익스피어의 희곡으로 유명한 <로미오와 줄리엣>에 음악을 붙였는데, 나긋한 로맨티시즘과 날카로운 심리묘사가 교차하면서 20세기 발레 음악의 기념비적 이정표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아름답고 내밀한 세레나데와 싸늘한 불안과 어두운 공포가 교차하는 그의 음악은 지난 세기의 낭만적 형식 속에 동시대의 불안을 담아낸 것으로 평가받는다.

PROGRAM

스트라빈스키 <풀치넬라 모음곡>

Stravinsky <Pulcinella Suite>

쇼스타코비치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a단조, 작품 77>

D. Shostakovich <Violin Concerto No. 1 in a minor, Op. 77>

프로코피예프 <로미오와 줄리엣 모음곡 중 발취>

S. Prokofiev <Romeo & Juliet Excerpts>

CAST



Yoel Levi

지휘자 요엘 레비 Yoel Levi

- 2014 ~ 제8대 KBS교향악단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
- 2005 ~ 2012 내셔널 일 드 프랑스 오케스트라 수석지휘자
- 2001 ~ 2009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 객원 지휘자
- 2001 ~ 2007 브뤼셀 필하모닉 수석지휘자
- 1988 ~ 2000 애틀란타 심포니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 1978 ~ 1984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부지휘자 및 상주지휘자
- 1978 브장송 국제 젊은 지휘자 콩쿠르 우승



James Ehnes

바이올린 제임스 에네스 James Ehnes

- 멜버른 심포니,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 상주음악가
- 그라미상, 그라모폰상, 주노상 수상
- 에네스 콰르텟 리더